

♡♡소식란♡♡

선교회 특별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모든 양로원 예배는 중전과 동일합니다.

◇월: Oradell 양로원 / 조미경 집사 인도, 김은수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이문웅 권사(색소폰)
Rochelle Park 양로원 / 박순운 권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Norwood, Buckingham(1st Fl) / 박문희 집사 인도, 김희선 집사 반주
Old Tappan, Sunrise /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화: Cresskill, Sunrise / 조미경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Wayne, View / 이에리사 사모 인도, 신은혜 집사 반주 Teaneck 양로원 / 김도희 집사 인도, 이영림 집사 반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니콜 오 전도사 인도, 한정아 집사 (피아노), 김여진 선생 (바이올린) 반주

◇수: Paramus, Sunrise / 어혜숙 권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양미영 집사 (플룻), 고하나(첼로)
Tenafly, County Manor / 김금화 집사 인도, 이경자 사모, 이연옥 반주
Norwood, Buckingham / Jeannie Hwang 선생 인도, 최성화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이문웅 권사(색소폰)

◇목: New Milford 양로원 /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이문웅 권사(색소폰)
Norwood 은혜 양로원 / 박경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Rockleigh 양로원 / 김금화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Wayne, Atrium / 김진옥 집사 인도, 박미경 집사 반주 Oakland, Health Care Center / 정준임 집사 인도, 한자경 집사 반주
Emerson Armenian 양로원 /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금: Paramus, The Cupola / 이미혜 집사 인도, 궁정은 사모 설교, 전원옥 사모 반주, 양미영 집사(플룻)
버겐 병원 내 정신병동 / 서연희 /양승화 권사 인도, 입학화 집사 / 한정아 집사 반주
Westwood, Care One / Brenda 조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Park Ridge, Plaza Regency / 박경옥 권사, 김선애 집사 인도, 박가희 집사 반주
Park Ridge, Mill Pond / 박경옥 권사, 김선애 집사 인도, 박가희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5동 /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rtist's Home / Metro Church Member

*선한 이웃 선교회의 Founder이신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이 7월 13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식은 7월 16일에 Griffin Family Funeral Home에서 있었고 베다니 교회에서 7월 18일에 열린 추모예배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천국에 계신 권사님과 이별의 슬픔 속에 있을 유가족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9월 8일(화)부터 하반기 사역이 재개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기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 중에도 쉬지 않고 찬양 사역으로 양로원을 지켜주신 Oradell, Norwood Buckingham, Oakland, Wayne View, 예술가 양로원 봉사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 피아노 기증 (Wood Crest Health Care Center in New Milford;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6주년기념 음악회 도움 주신 분들>
Elly Suh, Jihyun Jang, AK Duo & piano, 선한이웃 앙상블, 김동민 집사, 김순희권사/장소제공: 베다니교회(이기성목사) /광고후원: 베다니교회, 단비기독교방송, 한국일보/포스터 & 프로그램: 전동욱집사/비디오영상: 정찬미선생/방송: 이민화집사 & 조규설권사 /과일: 정구임권사, 음료수: 교현미집사/임종현집사, 임상미집사

< 음악회 후원 >
서연희, 정해양내과, 임미영, 송희수, 정구임, 윤희주, 정준임, 김학영, 백철원 /이수진, Steven Kang, W. Violin, 박광자, 어혜숙, River Church, Joy Church, Cornerstone Church, Woodcrest Healthcare, Song Dental, Sunrise Nursing Home, Main Violin, String House of Music, Heavenly Nail, Imosa, Debora Kim/Jabum Kim, Hyunjin Rho, Sungsoo Park/Kyungsoon Park, Jae H myung/Joanna J Myung, 아폴라교회, 한소망교회, 초대교회, 은혜가든, 조셉정산부인과, 진고개, 고은이치과, 양나영, 박시현/홍인자, 김&배, 오시환회계사, 별약국, 정태환/이명숙, 김명신, 이승호, 손재승, 선한이웃앙상블자모회
●음악회 총 수입 : \$33,710.00 ●총 지출 : \$23,104.20
●선교비용: 순회선교-Silver Missions Fellowship 아이티 학교 보조
네팔 지진구호 민주 다일 공동체
●선교회 기금 이체 : \$10,606.80(양로원 음악책 출판 및 경비)

선교회원 동정
◇고국 방문 및 여행 : Alisa 사모, 손재승, 순현승, Alex Park, 함지훈, 유경민
◇축 결혼: 정찬미 선생/지영찬 형제, 9월 27일(일), 오후 5시, 뉴저지 이레교회
◇선교: 캄보디아 선교: Alisa 사모
유카탄 선교: Yuna Chung, Daniel Kim, Elaine Kim
Mexico Navajo 선교: Aaron Rhee
◇이주: 문옥 권사께서 멕시코 국립 양로원에서 매주 토요일 찬양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노인들과 찬양 사역팀을 위해 많은 기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박성길 장로: 도미니칸 공화국 현지 목회자 세미나 개최(7월 20일-7월 27일)
◇NYYS Argentina Concert Tour: Hannah Ko, Ejin Hur, Jennifer Lee, Kyungmin Yoo
◇수상: Kenny Lee/All National Honor Orchestra Marching Band Drum Major Gina Chun/Selected for membership in the National Art Honor Society

◇◇ 행사 일정 ◇◇

- 9월 13일(일) Cresskill Sunrise
- 9월 26일(토) 뉴저지 한인회 추석 행사 연주
- 10월 4일(일) Old Tappan Sunrise
- 10월 10일(토) Oakland
- 10월 24일(토) Rochelle Park

후원해주신분들(2015 년 6, 7, 8월)
정해령, 임미영, 서연희, 어혜숙, Joy Church, 베다니교회, 초대교회
수입: 4,860.00 지출: 3,010.19

기도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하여
◆ 봉사자들의 참여를 위하여(한국 요양원, Rockleigh 양로원)
◆ 새로 시작한 Emerson Armenian 양로원 사역을 위하여
◆ 선한이웃 선교회의 2대 회장 정준임 집사를 위하여
◆ 선한이웃 앙상블 학생들을 위하여
◆ 9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 김학영, 박경옥, 어혜숙, 서연희, 양승화
장 로 : 박성길
사 모 : 궁정은
집 사 : 김도희, 김선애, 김진옥, 정준임, Branda 조, 박문희,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Maria Kim, Jeannie Hwang
전도사 : 니콜오,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이강휘 목사(아이티), 박성길장로님(순회선교사)

† 건강을 위한 기도
강신여 집사(강인숙 권사 부군) /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따님), 김캘러 집사(모친),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선한이웃 선교회 소식지 : 주님 안에서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되기를 바랍니다. 원고와 참여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5)

순종하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시절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은 음악이었습니다. 노래 몇 번 불러보는 게 전부다시피 했던 수업에 비해 시험은 어찌나 어렵던지요. 더구나 25문제, 33문제가 나오는 주요과목과는 달리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10문제만 나왔기 때문에 문제 하나의 배점이 10점으로, 정작 3점, 또는 4점이었던 주요과목의 한 문제당 배점에 비하면 두세 배로 높았기에 한 문제만 틀려도 다른 과목시험 두세 개 틀린 영향을 미치지 때문이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던 친구 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알고 있던 음악 이론을 저는 교과서를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곤 했습니다. 시험 범위 안의 모든 곡을 외워 불러보고, 장조를 외우고, 3/4박자인지, 6/8박자인지도 외우고... 지금 생각하면, 척 보면 알아야 하는 것들을 그 시절에는 이유도 모르고 그저 시험에 틀리지 않으 려는 마음으로 무작정 외웠습니다. 어찌나 복잡하든지 차라리 수학 공부가 쉬울 정도였습니다.

음악시험의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중학교에 들어간 후였습니다. 중학 시절 만난 음악 선생님을 통해 문맹에서 글자를 깨치듯 악보 읽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샹이, 플랫이 붙는 순서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스케일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신세계이던지요. 그 이후 고등학교 까지 이어진 짜임새 있는 음악 수업으로 인해 편곡과 작곡도 배웠습니다. 제 인생에 음악 시험으로는 마지막이었던 고등학교 2학년말고사의 문제는 선생님께서 칠판에 써내려가신 가사에 맞춰 작곡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을 통해 배운 기본적인 작곡의 형식에 맞춰, 자신의 느낌에 따라 흥얼거리며 오선지를 채워가던 그 시험이 30년이나 지난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세월이 지나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에게는 제가 가졌던 음악적인 아쉬움, 갈등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음악을 좀 더 알고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악기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 덕분에 1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선한이웃 앙상블의 학부형으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작은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그 오래된 이름표를 떼는가 했더니 어찌어찌 앙상블 단장이란 이름표를 붙이고 선한이웃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이 양로원에 방문하여 하는 연주를 보는 것은 큰 아이가 창단멤버로 들어왔던 이래로 지금까지 내내 이어지고 있고, 연주하는 곡들도 그다지 새로워질 게 없는데 매 양로원 연주를 보는 것은 늘 새롭습니다. 서른 넘으면 여자 인생 끝이라고 생각했던, 건방지기 짝이 없던 스무 살 시절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노년의 삶이 이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내가 맞을 현실임도 깨닫게 되고, 단원들의 연주를 보고 들으며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음악이 가진 힘도 느끼고, 음악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단원들의 삶을 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겨울 웨스트우드 양로원 연주를 마친 후 어떤 여자분이 손으로 직접 쓴 쪽지를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계신 89세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시던 바이올린 연주를 해 줄 수 있는지 부탁하는 쪽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은 감격을 잃으신 고로 들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딸로서,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침 우리 단원중 한 명이 약속 하고 나중에 병원으로 찾아가 연주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표정이 세밀하게 바뀌며 미소를 머금은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연주한 우리 단원도, 데리고 갔던 학부형도, 부탁했던 따님도, 양로원에 계시던 90세 아버님도, 그리고 그 상황을 영상을 통해 캐나다에서 보고 있었던 아들도 모두 모두 감동의 순간 이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다 졸업했는데 앙상블 연습에 매번 나가고, 매 양로원 연주에 쫓아다니기 힘들지 않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음악시험을 그리도 어려워했던,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이리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이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하시니 그저 송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쓰시기도 하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자리에 맞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며, 새로 생긴 이름표,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히 앙상 블의 단장을 맡습니다. 놀라운 달란트를 가졌을 뿐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단원들이 받은 달란트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일에 선한이웃의 모든 동역자들께서 함께 기도해주시 기를 부탁하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수진 집사
선한이웃 앙상블 단장



<선한이웃 앙상블 단원들>

지키고 싶은 가치

한국에서의 대학 재학시절 집 근처 작은 교회에서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을 선발하여 합주단을 시작했던 적이 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무작정 오디션 공고를 냈다. “아가페 합주단”으로 이름은 정했는데 뽑힌 아이들 열댓 명 중에 서너 명 정도만 실제로 악기를 배우고 있던 터라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나 마찬가지였다. 합주는커녕 악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는 아이들과 씨름했다. 아버지와 나는 바이올린을 가르쳤고 형은 첼로를 지도했다. 외부에서 다른 선생님들을 모셔올 만큼 모든 스태프들과 부모들은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을 도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 시절 합주단에서 배우던 아이들 중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지금 한국에서 꽤 괜찮은 비올리스트가 된 형국도 있고, 지금 미국에서 첼로로 박사 과정에 있는 지혜도 있다. 플루트를 하던 진주는 재즈 명문 버클리를 졸업하고 막 한국으로 귀국했고,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공을 들이던 선호는 독일 하노버 음대에서 피아노로 박사 과정 중이란다. 당시 카센터에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힘겨운 뒷바라지로 바이올린을 했던 지선은 서울대를 졸업해 지금은 자기의 어린 시절 텃밭이었던 바로 그 아가페 합주단의 담당 지도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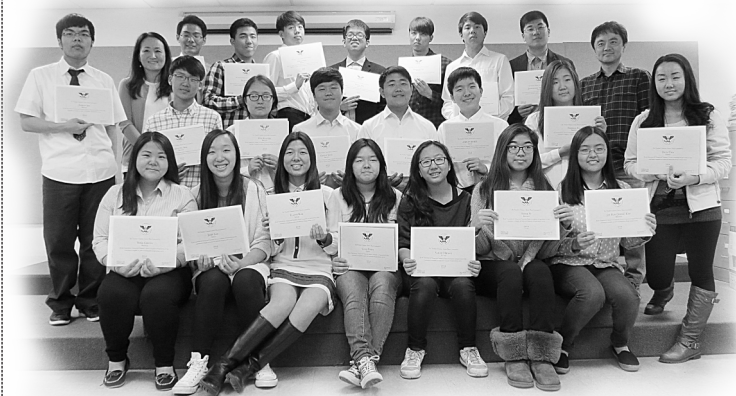
어린 시절 합주단을 통해 악기를 접했던 아이들이 잘 성장했고 음악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합주단을 시작한 지 2~3년 되던 시기부터 슬슬 주일학교 예배에 반주팀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년부에서 시작해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속한 주일학교에서 악기를 들고 반주하며 예배를 섬겼다. 시간이 더 흐르자 졸업한 아이들이 생겨났고, 이들은 성인예배의 실내악단에서 예배를 도왔고 오후에는 합주단 후배를 도와 악기를 가르치는 문화가 생겨났다.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 셈이다. 인근 군부대나 요양 시설을 찾아 연주했고, 여름에는 교회와 군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백령도에 방문에서 음악으로 섬기는 사역을 가졌다.

악기를 배워가는 과정과 더불어 교회와 예배, 그리고 후배들을 돌보고 타인을 돌아보는 일련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악기로 음악만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꺼리는 곳에 가게도 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한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와 후배들을 돌보며 이들이 가는 발걸음이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김동민

Good Neighbor Ensembles Conductor



<사회 봉사상 대통령상 수상자들>

바보의 힘

누가 우리를 무시해도
누가 무시해도
웃자고 했어요
왕따시켜도
바보라고 비웃어도 그냥
웃자고 했어요

피식 웃는 남편에게
'성도'
라는 이름 하나로 살자고 했어요
아집도 언쟁도 버리고
속 없는 바보
예수만 붙들고 살자고 했어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실 그늘을 만들잖아요
꽃은 소낙비에 쓰러지면서도
더 붉그레이 꽃을 피우잖아요

누군가 원망해도
변명하지 말고 미숙아처럼
패리면 맞고
할키면 피흘리면서
예수만 바라보자고 했어요

김 은자 권사/시인

☺ 선한이웃 선교회 창립 16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를 후원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

